

## 소리언어의 초분절음과 수화언어의 통사적인 표지로서의 비수지적 신호

장세은\*

### 1. 서론

일반인들은 한국 농아인들끼리 사용하는 자연수화언어를 접하게 될 때 머리카락의 이동 또는 얼굴의 표정이 빠르게 변하거나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농아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무례한 행동으로 여기거나 수화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 생각하기 쉽다. 또한 소리언어만 연구하는 일반언어학자들도 농아인들의 다양한 얼굴 표현을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시하는 소리언어에서의 언어의 사용기능의 하나인 정서적인 기능으로만 이해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러한 얼굴표현을 수화언어 화자의 정서적인 상태의 하나의 반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화언어에서도 몸짓표현(manual signs)과 아울러 어떤 특징의 얼굴표현이 동반되어 소리언어와 같이 언어의 정서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얼굴표현은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수화언어에 주요한 언어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미국수화언어(American Sign Language, 이하 줄여서 ASL이라 부름)에서 이러한 얼굴표현이 갖는 비수지적 신호(nonmanual signals)의 언어학적인 중요성을 관찰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부터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sup>1)</sup> 그러나 한국수화언어(Korean Sign Language, KSL)에서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수화언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배우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아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이 많이 개선됨으로써 T.V. 자막으로 수화언어를 동시통역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수화언어가 갖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조교수

1) Stokoe(1960), Bellugi & Fischer(1972), Liddell(1978), Baker-Shenk & Cokely(1980)등 이외에도 참고문헌 참조.

고 있는 비수지적 신호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일반인들이 농아인들과 수화언어로 얼마나 올바르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농아인들이 T.V. 자막을 얼마나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수지적 신호는 수화언어의 절의 영역에서 의문문, 부정문, 명령문과 같은 서로 다른 구문들을 구분시켜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통사적인 표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오해는 수화언어는 손몸짓 수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수화언어는 소리언어의 분절음에 대응되는 손몸짓 수화와 초분절음에 대응되는 비수지적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학적인 지식은 올바른 수화언어의 이해에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ASL과 KSL의 비수지적인 신호의 특성을 소리언어에서의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의 특성과 비교하면서 비수지적인 신호가 문법적인 표지기능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절에서는 수화언어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여기서 소리언어의 분절음과 수화언어의 손몸짓 수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수화언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3절에서는 소리언어의 초분절음과 수화언어의 비수지적 신호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의문문과 주제화구문을 중심으로 ASL과 KSL에서의 통사적인 기능을 갖는 비수지적 신호의 특성을 살펴본다. 4절은 앞선 논의의 요약과 결론 부분이다.

## 2. 소리언어의 분절음과 수화언어의 손몸짓 수화(manual signs)

소리언어와 수화언어의 큰 차이점으로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상이점이 있다. 첫째는 언어외적인 요소로서의 서로 다른 생체학적 의사소통 수단이고 둘째는 언어 내적인 요소로서의 서로 다른 단어구성 방법을 들 수 있다. 첫째, 수화언어는 소리언어와는 다른 신체적 양상(physical modality)으로 발생(production)하고 인지(perception)된다. 즉 소리언어에서는 입과 귀에 의존하나 수화언어는 손과 눈에 의존한다. 발생에는 입과 손, 인지에는 듣기와 보는 것이 소리언어와 수화언어의 생체적 수단으로 각각 사용된다. 둘째, 소리언어에서의 단어(word)의 구성은 분절음의 선형 연속체(linear sequence)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수화언어에서의 sign은 여러 공간차원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요소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 (3)으로 요약된다.

(3) 단어구성방법

구분		소리언어	수화언어
언어외적 요소: 신체적 양상(physical modality)	발성(production) 인지(perception)	입 귀	손 눈
언어내적 요소: 단어(word)의 구성	분절음	선형 연속체 (linear sequence)	sign은 여러 공간차원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요소들의 결합

우선 소리언어인 영어 예를 살펴보자.

- (4) a. 단어(word): *passing*  
 b. 형태소(morphemes): pass + ing  
 c. 음운적 분절음(phonological segments): /p/, /æ/, /s/, /ɪ/, /ŋ/

영어단어 *passing*은 두 개의 형태소의 결합이며 첫 형태소의 분절음은 /p/, /æ/, /s/의 선형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이와 다른 연속적 순서를 갖는다면 *sap*, *apse*, *asp*와 같은 의미가 다른 단어가 되어 버린다. /p/, /æ/, /s/와 같은 분절음을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음소(phoneme)라 하지만 생성문법에서는 하나의 음소를 다음 (5)의 여러 가지 변별적 자질의 동시 묶음으로 표현된다.

- (5) a. The choice of articulator  
 b. The place of articulation  
 c. The manner of articulation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언어는 수많은 단어를 만들기 위하여 한정된 수의 의미 없는 분절음을 사용한다.<sup>2)</sup>

2) 또한 소리언어의 분절음의 수와 분포에 대한 제약과 형태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절음이 연속체로 어떻게 결합되는 가에 대한 제약과 같은 음소배열론(phonotactics)이 있다. 수

한편 수화언어에서의 단일형태소(monomorphemic form)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단위로 나누어진다. 끝에 놓인 괄호 안의 용어는 Stokoe(1960)가 사용한 것이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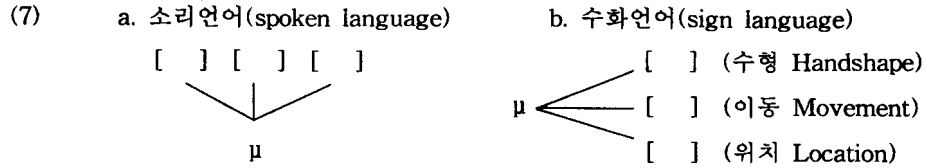
- (6) a. The shape of the hand(s) (dez)
- b. The place (location) of the hand(s) in relation to the signer's body (tab)
- c. The movement of the hand(s) (sig)

이러한 Stokoe의 통찰력은 (5)에 따라 소리언어에서 분절음의 음소를 규명하고 이러한 음소의 변별적 자질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러한 각 단위는 자질군으로 표시되어질 수 있는 한정적인 수의 수화소를 갖는다. 그리하여 소리언어에서 사용된 (5)의 변별적 자질의 분류 방법과 같이 기본 sign을 (6)과 같이 3개의 단위로 나눈다. Stokoe(1960)는 손모양을 19개, 손의 위치를 12개, 그리고 손이동을 24개의 수화소로 설정하였다.<sup>4)</sup> 소리언어에서의 음소가 형태소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화언어에서는 3개의 단위가 형태소를 구성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Hurst 1993: 210)

---

화언어에서도 소리언어에서와 같이 한정된 수의 의미 없는 분절음이나 선형적 연속성의 분절구조를 갖는 음소배열계약이 있음을 장세은(1997)을 참조하시오.

- 3) William Stokoe(1960)는 수화언어의 어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구조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하나의 sign과 다른 sign을 구별짓기 위하여 소리언어의 음소와 유사한 수화소(chereme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는 소리언어와의 구별을 위하여 처음에는 쓰여졌으나 소리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화언어도 언어학적인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는 가정에 동의하는 많은 수화음운학자의 연구로 인하여 1960년 이후 Stokoe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수화언어 연구자들은 CHEREMES와 CHERLOGY의 용어를 각각 소리언어에서와 같은 PHONEME과 PHONOLOGY의 용어로 사용한다.
- 4) 그러나 학자마다 각 범주에 속하는 수화소의 수가 같지 않다. 미국수화언어에서 Friedman(1977)은 (2)의 항목의 각 범주에 각각 수화소를 29-15-31개를 설정하였고 한국수화언어에서는 김승국(1994)은 29-23-36, 석동일(1989)은 21-20-49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숫자에서의 불일치는 학자마다 소리언어에서의 음소(phoneme)와 이음(allophone) 또는 변이음(variant)의 혼동과 같이 수화소와 변이형에 대한 기준이 서로 일치할 보지 못하기 때문인 듯하다. 올바른 수화언어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도 조만간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여기서  $\mu$ 는 형태소를, [ ]는 음소 또는 특정한 수형, 손의 이동, 몸에서의 손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위를 표시한다. Battison(1978) 이후로 (7b)의 수화언어의 3가지 음소단위 이외에도 손바닥의 방향(orientation of the palm)을 하나의 독자적인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sup>5)</sup>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리언어의 음소는 선형 순서로 형태소를 구성하는 반면에 수화언어의 음소는 공간적인 동시성을 갖고 있어 이중조음(double articulation)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수화언어의 음소는 대립(opposition)과 대조(contrast)의 체계를 갖고 있는 소리언어의 음운론의 변별적 자질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가정된다.

생체학적인 의사소통의 차이와 분절음의 단어구성 방법에서의 차이가 소리언어와 수화언어를 구별시켜 주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언어 능력에 관한 언어보편소의 연구목표와 의미 없는 분절음의 변별적 자질의 동시 묶음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차이점은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언급된 두 가지 차이점은 상이점이라기 보다는 수화언어도 소리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 3. 소리언어의 초분절음과 수화언어의 비수지적 신호(nonmanual signals)

#### 3.1 소리언어에서의 통사적 기능을 갖는 초분절음

소리언어의 초분절음인 강세, 음의 높낮이, 음의 길이, 억양 등의 차이에 따라 동일 분절음의 연속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화언어에서도 음운분절음 이상의 단위에 나타나는 초분절음의 특성이 단어와 구형성 뿐만 아니라 문장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up>6)</sup> 소리언어의 초분절음

5) 수방향을 포함한 조음매개변수에 대한 최소대립어쌍의 구체적인 ASL과 KSL의 예는 장세은(1997, 1999a)를 참조하십시오.

의 특성을 지니는 비수지적 신호는 몸과 머리의 이동과 결합하여 얼굴의 어느 특정부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진다. 소리언어에서의 초분절음인 억양이 서술문과 의문문을 구별시켜주듯이 수화언어의 문법구조에서 문법적 기능은 비수지적 신호가 담당함을 살펴보자.

우선 소리언어인 한국어와 영어에서 억양의 초분절음이 통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예를 살펴보자.

(8) 한국어

- a. 철수는 점심 먹었어.
- b. 철수는 점심 먹었어?

(9) 영어

- a. You are going to run tomorrow.
- b. You are going to run tomorrow? (Liddell 1980: 11)

(8)과 (9)의 각 (a)는 평서문이고 각 (b)는 (a)와 문장결정어미나 어순이 동일함을 보여주는 yes-no 의문문이다. 한국어에서 문장의 종결 양식(평서문, 의문문, 명령문등)을 나타내는 서법(mood)은 그에 해당되는 적절한 동사어미로 결정되지만 (8a-b)와 같이 평서문과 같은 종결어미를 가지면 억양이 그 문형을 구별시켜준다. 또한 (9b)와 같이 영어에서도 보조용언(조동사나 대동사)의 위치 변형이 없다면 평서문과 의문문의 구별은 단지 억양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상승조의 억양이

2) Liddell (1978)은 비수지적 신호가 어휘영역, 구영역, 절영역을 갖고 있으므로 비수지적 신호가 하나의 언어단위가 됨을 관찰하였다. 이는 비수지적 신호가 어휘항목의 한 일부분으로 어휘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신호가 어떤 어휘항목의 영역 내에 있다면 그 어휘항목과 더불어 발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in a careless manner" 또는 "carelessly"을 의미하는 비수지적 신호 'th'(think에서 발음 th와 관련되는 입모양으로 비수지적인 신호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음)는 DRIVE의 단어와 함께 올 때 그 어휘영역 내에 'th'를 동시에 발화함으로써 그 어휘의 의미는 "drive carelessly"가 된다.

물론 비수지적인 신호는 개별 어휘항목의 단어를 표현하는 손뭉치 수화와 함께 나타내어 그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수지적 신호가 어휘, 구, 절에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형태소의 일부분으로 고려되는 것만 비수지적 신호라 말한다.

(8)과 (9)의 각 (a)인 평서문과 각 (b)인 의문문을 구분시켜주는 문법적 표지의 기능을 담당한다.

### 3.2 수화언어에서의 통사적 기능을 갖는 비수지적 신호

#### 3.2.1 ASL

소리언어에서 이러한 억양의 차이가 문형을 결정되듯이 수화언어에서는 비수지적 신호가 문장에서의 문법적인 표지 기능을 한다. 다음의 ASL의 예를 살펴보자.

#### (10) a. WOMAN FORGET PURSE

'The woman forgot the purse.'

y/nq

#### b. WOMAN FORGET PURSE

'Did the woman forget the purse?' (Liddell 1980: 20)

(10a)는 비수지적 신호를 사용하지 않은 무표정(neutral expression)으로 발화한 평서문이다. (10b)는 yes-no 의문문으로 (10a)와 같은 어순을 갖고 있으나 손몸짓 수화와 더불어 발화 처음부터 끝까지 비수지신호인 y/nq가 동시에 이루어진다.7) Yes-no 의문문에 사용되는 y/nq를 설명할 때, Liddell(1980)에서는 눈썹을 올리고 머리와 몸을 앞으로 쏠리게 하는 [brow raise, head forward, body forward] 행위들의 결합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Aarons(1994)에서는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벌리고 청자 쪽으로 눈을 응시하면서 머리를 앞으로 끄덕이고 입술을 약간 벌리는 [raised brows, widen eyes, forward tilting of the head, eye gaze at addressees, slight pursuing of the lips] 행위들의 결합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8)과 (9)에서 살펴본 소리언어에서의 초분절음인 억양이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별시켜주듯이 수화언어의 평서문과 의문문의 문장구조의 통사적인 기능은 비수지적 신호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 구성성분의 통사적인 이동을 허용하는 주제화구문이나 wh-의문문에

7) 손몸짓 수화로 나타낸 단어는 ASL에서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KSL에서는 석동일(1989)에 따라 < >로 표기한다. 그 위에 줄친 부분은 비수지적 신호를 나타낸다.

도 ASL에서 비수지적 신호가 사용된다. 우선 ASL의 주제화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 (11) a.  $\overline{\quad\quad\quad}t$   
 WOMAN FORGET PURSE  
 'As for the woman, she forgot the purse.' (Liddell 1980: 23)
- b.  $\overline{\quad\quad\quad}t$   
 CAT, DOG CHASE  
 'The cat, the dog chased.' (Aarons 1994: 43)

(11a)는 주어가 주제화된 구문이고 (11b)는 목적어가 주제화된 구문이다. (11a)는 첫 단어인 WOMAN에 비수지적 신호를 줌으로써 비주제화된 문장인 (10a)와는 구별이 된다. 또한 (11b)와 같이 목적어가 문두로 전치되면 비수지적 신호가 그 전치된 요소와 함께 나타난다. 또한 주제화된 구성성분은 같은 문장에서 남은 구성성분과의 사이에 매우 짧은 시간의 휴지(break)를 줌으로써 주제화된 성분이 기본어순 SVO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려준다.<sup>8)</sup> 여기서 화제어(topic)으로 표기된 t의 기호는 Liddell(1980)에서는 눈썹을 올리고 머리를 약간 뒤로 끄덕이게 하는 [brow raise, slight backward head tilt] 행위들의 결합으로, Aarons(1994)에서는 눈썹을 올리고 머리를 뒤로 끄덕이고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옆으로 흔드는

8) Fischer(1975: 5)는 ASL의 기본어순이 영어와 같은 SVO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기본어순의 변화는 이동규칙에 의하여 일어나며, 이동한 구성성분과 문장의 남은 부분 사이에 '역양 휴지(intonational break)'라는 것이 있다고 보고했다. Liddell(1980: 79)은 이러한 휴지를 직접 VTR로 측정한 결과, 화제어는 남은 구성성분에서의 간격 보다 0.37초 정도 더 시간적으로 길다라고 관찰함으로써 Fischer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KSL의 어순과 어순변화에 관한 발표논문인 장세은 & 양상백(1999)에서 석동일(1989)의 주장과 같이 KSL에서의 기본어순은 한국어와 동일한 SOV라고 관찰하였다. 또한 우리는 어순변화를 가져오는 전치요소는 ASL의 주제화구문보다는 좌전위구문으로 분석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KSL에서 문두 전치요소에는 ASL와 같은 't'의 비수지적 신호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KSL에는 한국어와 ASL과 같은 화제화 표지(topic marker)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ASL과 같은 '역양휴지'를 문두 전치요소와 문장의 남은 부분에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KSL의 어순변화와 비수지적인 관계의 예는 다루지 않는다.



[raised eyebrow, backward tilting of the head, widening of eyes, body shifting from side to side] 동작의 결합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wh-의문문에서의 비수지적 신호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아래는 ASL의 wh-의문문의 예문들이다.

- \_\_\_\_\_ wh
- (12)a. JOHN BUY YESTERDAY WHAT
- \_\_\_\_\_ wh
- b. JOHN BUY YESTERDAY WHAT
- \_\_\_\_\_ wh
- c. JOHN BUY WHAT YESTERDAY
- 'What did John buy yesterday?' (Aarons 1994: 56)

(12a-c)는 ASL의 wh-의문문에서의 비수지적 신호인 wh-표지의 분포를 보여준다. ABKN(1992), Aarons(1994), Neidle et al.(1998)등에 의하면 wh-단어의 통사적인 이동이 있는 (12a-b)의 경우에 (12a)에서와 같이 wh-단어만 비수지적 신호를 갖거나 (12b)에서와 같이 wh의 비수지적 신호가 절 전체에 나타내주어 wh-표지의 선택적인 분배를 보여준다. 그러나 wh-단어의 통사적인 이동이 없이 제자리 (in situ)에 나타나는 (12c)의 경우에는 wh의 비수지적 신호가 절 전체에 걸쳐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Aarons(1994)에서는 wh의 비수지적 신호는 눈썹을 아래로 하고 눈을 좁혀 눈살을 찌푸리고 상체를 앞으로 움직이면서 머리를 까다이고 입술을 약간 뽕족하게 하면서 둥글게 만들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lowed brows, narrowed eyes, a slight frown, torso shifted forward, head tilted, rounded lips, slight sharp, side-to-side headshape] 행위들의 결합으로 나타낸다.

### 3.2.2 KSL

KSL에서도 ASL와 같이 yes-no 의문문 형성에 필요한 형태소인 비수지적 신호가 쓰인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3) a. <철수> <영희> <만났다>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_\_\_\_\_ y/nq  
b. <철수> <영희> <만났다>

\_\_\_\_\_ y/nq  
c. <철수> <영희> <만났다>  
‘철수가 영희를 만났나?’

(13b-c)는 평서문인 (13a)와 동일한 어순을 갖지만 y/nq의 비수지적 신호가 (13b)처럼 문장전체에 또는 (13c)처럼 문장의 마지막 요소인 동사에만 주어지면 yes-no 의문문이 된다.<sup>9)</sup> 관찰된 y/nq는 [몸과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눈을 등글게 크게 뜨고, 입술을 약간 벌리는] 행위들의 결합이다.<sup>10)</sup> 이는 ASL의 y/nq 비수지적 신호와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SL의 wh-의문문에 나타나는 비수지적 신호의 특성을 살펴보자.

9) KSL의 yes-no 의문문 중 문장의 마지막 요소인 동사에만 나타나는 y/nq 비수지적 신호를 갖는 (13c)는 흥미롭다. 이는 소리언어의 (8)과 (9)의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상승조의 억양으로 올리는 것과 동일하므로 우리는 (13c)가 KSL에서 사용되는 이유를 소리언어에서 유추된 영향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농아인들은 (13c)보다는 (13b)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13c)와 같은 경우를 ASL에서 'hn'의 비수지적 신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i)과 (ii)에서와 같이 머리를 끄덕이는(headnods) 비수지적 신호를 'hn'으로 표기하고 문장의 마지막에 'hn'를 줌으로써 문장의 상황(event)을 강조(emphasis)하는 영어조동사 'do'와 'be'와 같은 존재서술어(existential predicate)의 기능을 한다.

\_\_\_\_\_ hn  
(i) DOG CHASE CAT  
'The dog did chase the cat.'

\_\_\_\_\_ hn  
(ii) JOHN DOCTOR  
'John is a doctor.'

물론 'hn'의 비수지적 표시가 문장 전체에 배분되기도 한다. 소리언어의 강조와 같은 이러한 유형의 존재서술구문에도 초분절음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화구문과 'hn'의 분포와의 관련성 그리고 'hn'구문의 통사적 분석은 Liddell (1980)과 Petronio (1993)을 참조하시오.

10) “입술을 약간 벌리는 행위”는 청각장애자들이 수화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구화에 익숙해져 있어 자연스럽게 구화와 병행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_\_\_\_\_wh
- (14) a. <철수> <만났다> <누구>
- \_\_\_\_\_wh
- b. <철수> <만났다> <누구>
- \_\_\_\_\_wh
- c. <철수> <누구> <만났다>
- ‘철수가 누구를 만났나?’

(14a-c)는 ASL의 (12a-c)의 wh-비수지적 표지의 분포와 같이 나타난다. 즉, (12a-b)에서 보듯이, wh-단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나타날 때 wh-표지는 (14a)와 같이 wh-단어인 <누구>에만 주어지거나 또는 (14b)와 같이 절 전체에 분배되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14c)에서와 같이 wh-단어가 제자리(in situ)에 있으면 wh-표지는 절 전체에 분배되어 나타나야만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wh의 비수지적 신호는 [상체를 앞으로 움직이고, 머리를 약간 뒤로 제치면서, 눈썹을 올려, 눈을 둥글게 크게 뜨고, 입술을 뽀족하게 하여 둥글게 만드는] 행위들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KSL의 wh 표지와 y/nq 표지간의 특이한 차이점이 “머리를 약간 뒤로 제치는” 동작의 유무임을 관찰하였다.<sup>11)</sup>

이러한 비수지적 신호의 차이점은 wh-단어가 비한정적인 양화사(indefinite quantifier)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를 구별시켜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1) 또한 ASL의 wh-표지와 wh-의 차이점도 “머리를 약간 뒤로 제치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 ASL에서 이러한 동작은 주제화구문과 관계절에서 나타나는 비수지적 신호이다. Liddell(1980: 22)에 의하면 관계절의 비수지적 신호는 눈썹을 올리고 머리를 뒤로 제치고 윗입술을 올리는 (brow raise, head tilted back, upper lip raised) 세 가지 행위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KSL에 목적어가 문두에 나오는 문장을 주제화구문보다는 좌전위구문으로 분석되는 이유에도 이러한 비수지적 신호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어순변화의 관찰에 의하면 ASL에서 주제화요소와 동시에 나타나는 “머리를 제치는” 행위가 KSL에서는 wh-비수지적 표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비수지적 표지는 wh-의문문과 어순변화구문과는 상보적인 분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ASL의 wh-비수지적 표지 중의 하나인 “상체를 앞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주제화구문이나 관계절의 비의문문의 비수지적인 행위의 차이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이 KSL에서도 의문문과 비의문문의 차이점으로 구분되는 요소인지는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_\_\_\_\_ v/ng

- (15) <철수> <누구> <만났다>  
 ‘철수가 누군가를 만났나?’ (yes-no 의문문)

\_\_\_\_\_ wh

- (16) <철수> <누구> <만났다>  
 ‘철수가 누구를 만났나?’ (wh-의문문)

wh-단어가 비한정적인 양화사(indefinite quantifier) 의미인 “누군가” 또는 “무언가”로 해석되는 (15)의 경우와 wh-의문사로 쓰인 (16)의 경우를 구분해주는 것이 “머리를 약간 뒤로 제치는” 행위의 유무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에서 (17)과 같이 wh-의문사와 이에 상응하는 비한정 양화사가 같은 형태적 꼴을 가질 경우에 이들은 음의 높낮이와 액센트(pitch-accent)에 의해 구별되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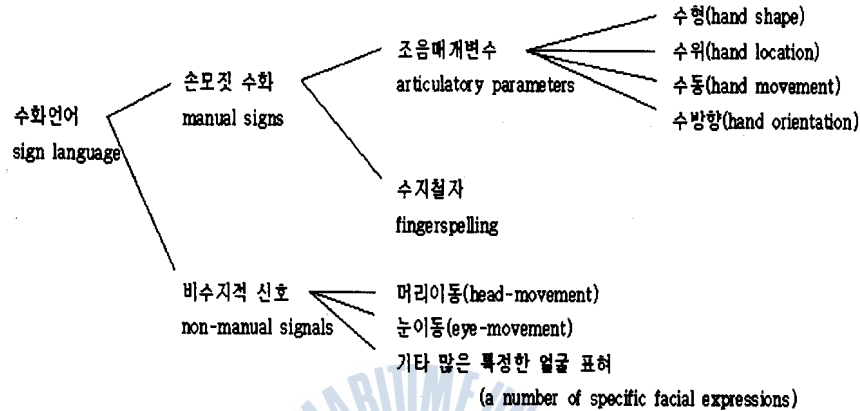
- (17) 철수가 누구를 만났니?  
 a. Who did Chulsoo meet?  
 b. Did Chulsoo meet anybody?

wh-단어에 음의 높낮이와 액센트가 주어지면 (17a)와 같이 wh-단어로 해석되고 그렇지 않으면 (17b)와 같이 비한정 양화사로 해석된다. 이와 유사하게 KSL에서도 (15)와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wh-의문사와 비한정적 양화사는 같은 수화형을 가지나 문장에서 비수지적 표지를 달리함으로써 이를 구별하는 듯하다. 여기서도 우리는 소리언어의 초분절음이 수화언어에서 비수지적 표지와 상응됨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소리언어의 분절음과 초분절음과 비교하면서 수화언어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다음 표는 수화언어의 특징을 보여준다.<sup>12)</sup>

<표1>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화언어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언어적인 단위는 손모짓 수화와 비수지적 신호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소리언어의 분절음과 초분절음에 각각 대응됨을 살펴보았다. 즉, 소리언어에서 단어를 이루는 분절음은 선형연속체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수화언어에서의 한 단어를 이루는 표시는 여러 공간차원에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리언어의 초분절음의 특성을 지니는 비수지적 신호는 몸과 머리의 이동과 결합하여 얼굴의 어느 특정부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우리는 ASL과 KSL의 비수지적인 신호의 특성을 소리언어에서의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의 특성과 비교하면서 주제화구문과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비수지적인 신호가 문법적인 표지기능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KSL에서 wh-의문사와 비한정적 양화사의 구별은 서로 다른 비수지적 신호에 의해 구별되므로 우리는 여기서도 소리언어의 초분절음과 수화언어의 비수지적 신호가 서로 상응됨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이 수화언어의 비수지적 신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2) 수지철자는 고유명사나 숫자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 References

- 김승국 (1994) *한국수화연구*, 오성출판사
- 석동일 (1989)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세은 (1997) 수화언어와 음운중첩현상, *언어학* 제21호, 한국언어학회, 263-287.
- 장세은 (1999a) 수화언어의 음운구조 연구, *언어과학* 6-1, 81-109, 동남언어학회
- 장세은 (1999b) 미국수화언어와 한국수화언어의 wh-의문문, *언어학* 7-3, 297-319, 대한언어학회
- 장세은 & 양상백 (1999a) 수화언어에서의 전치구문: 주제화구문 또는 좌전위구문, 새한영어영문학회 봄학술발표논문.
- 장세은 & 양상백 (1999b) 미국수화언어의 wh-의문문 분석에 대한 소고, *인문사회과학논총* 7권, 한국해양대학교.
- Aarons, Debra (1994) *Aspects of the Syntax of American Sign Language*,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Aarons, D., Bahan, B., Kegl, J. and Neidle, C. (1992) "Clausal structure and a tier for grammatical mark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15:2, 103-142.
- Baker-Shenk, C. and D. Cokely (1980) *American Sign Language: A Teacher's Resource Text on Grammar and Culture*, Gallaudet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 Battison, Robbin (1978) *Lexical Borrow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Linstok Press, Silver Spring.
- Bellugi, U. & S. Fischer (1972) "A comparison of sign language and spoken language: Rate and grammatical mechanism," *Cognition* 1, 173-200.
- Bouchard, Denis (1996) "Sign language & language universals: the status of order & position in grammar." *Sign Language Studies* 91, 101-160.
- Fischer, S. (1975) "Influences on word order change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Li, C. N., ed., *Word Oder and Word Order Change*,

-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 Friedman, Lynn A. (1977) *On the other hand: New Perspectives on American Sign Language*, (ed.), Academic Press.
- Hurst, Harry van der (1993) "Units in the analysis of signs," *Phonology* 10(2): 209-24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ddell, S. K. (1978) "Nonmanual signals and relative clause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Understanding Language Through Sign Language Research*, edited by P. Siple, 59-90, Academic Press, New York.
- Liddell, S. K. (1980) *American Sign Language Syntax*, Mouton Publishers, New York.
- Klima, E. S. & U. Bellugi (1979) *The Signs of Language*,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 Neidle, Carol, D. MacLaughlin, R. G. Lee, and B. Bahan (1998) "The rightward analysis of wh-movement in ASL: A Reply to Petronio and Lillo-Martin," *Language* 74, 819-831.
- Petronio, Karen (1993) *Clause Structure in American Sign Langu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Petronio, Karen & D. Lillo-Martin (1997) "Wh-movement and the position of Spec-CP: evidence from American Sign Language," *Language* 73, 18-57.
- Stokoe, William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 of the American deaf,"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8, 7-79, SUNY at Buffalo.어문연구

## Suprasegments in spoken languages and nonmanual signals as syntactic markings in sign languages

Jhang, Sea-Eun\*

### Abstract

It has been observed and described that nonmanual activity is used to form several different types of sentences in American Sign Language(ASL). But Korean linguists have pai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these nonmanual signals on Korean Sign Language(KSL). This paper tries to fill this descriptive gap by introducing the properties of sign languages and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spoken langua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suprasegments such as intonation in spoken languages with properties of nonmanual signals in ASL and KSL and to explore that nonmanual signals function as syntactic markings. In order to do so, section 2 briefly describes the linguistically significant properties of sign language, and helps read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sign language to understand sign language, examining som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segments in spoken languages and manual signs in signed languages. Section 3 explores the relationship with suprasegments in spoken languages and nonmanual signals in signed languages with special regard to yes-no and wh-questions and topicalization in ASL and KSL. Section 4 concludes the paper, summarizing properties of sign language consisting of manual signs and nonmanual signals.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Korea Maritime University